

양극화 완화를 위한 상생·포용·도전의 충남 일자리 전략

이민정 · 신동호 · 김양중 · 김종화 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아젠다 전략과제

minjoung1006@cni.re.kr(이민정)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노동시장의 문제점, 사례분석, 정책분석을 통해 “충남형 일자리” 모델을 제안하는 것임. 충남형 일자리 모델의 분야 설정과 분야별 전략, 필요 제도 등을 도출하고자 함.

CONTENTS

1. 연구배경
2. 충남형 일자리의 정의
3. 충남형 일자리 모델 소개
 - 상생형 일자리
 - 포용형 일자리
 - 국제창업형 일자리
4. 요약 및 제언

요 약

- 금융위기 이후, 세계 및 국내 산업에서 주력산업 구조가 변화하였으며, 이는 지역경제기반의 쇠락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왔음. 이러한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 “충남형 일자리”는 충청남도가 주도하고 지역의 이해당사자 및 도민 참여를 통해 생산관계 및 생산방법, 고용지역, 고용계층의 다양한 혁신을 지향하는 일자리로 정의.
 - 충남형 일자리 창출모델은 충남 노동시장에 성장과 복지, 양극화 완화를 도모하는 방법론
 - 핵심목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 이를 통한 양극화 완화
- 충남형 일자리는 크게 3가지로 구성함.
 - ① 기업중심 경제구조의 경로수정 방안으로써 “상생형 일자리” 모델
 - ② 더행복한 충남을 실현하기 위한 “포용형 일자리” 모델
 - ③ 다소 도전적인 분야인 ‘국제창업’ 분야를 발굴하는 “국제창업형 일자리” 모델
- 충남형 일자리의 차별화를 위한 제언
 - ① 정책적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과 지원체계 구축
 - ② 다양한 형태의 도시형 산업생태계 조성
 - ③ 상생협력 거버넌스 지원체계 구축
 - ④ 기업진단-기술 및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설계·후속지원
- 일자리 창출에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서비스를 결합하고 이를 충남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양극화 완화의 효과 기대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향후 만들어질 일자리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임
 - 나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의 일자리 모델과 경쟁하여 이를 대체해 갈 수도 있을 것임

01

연구배경

1.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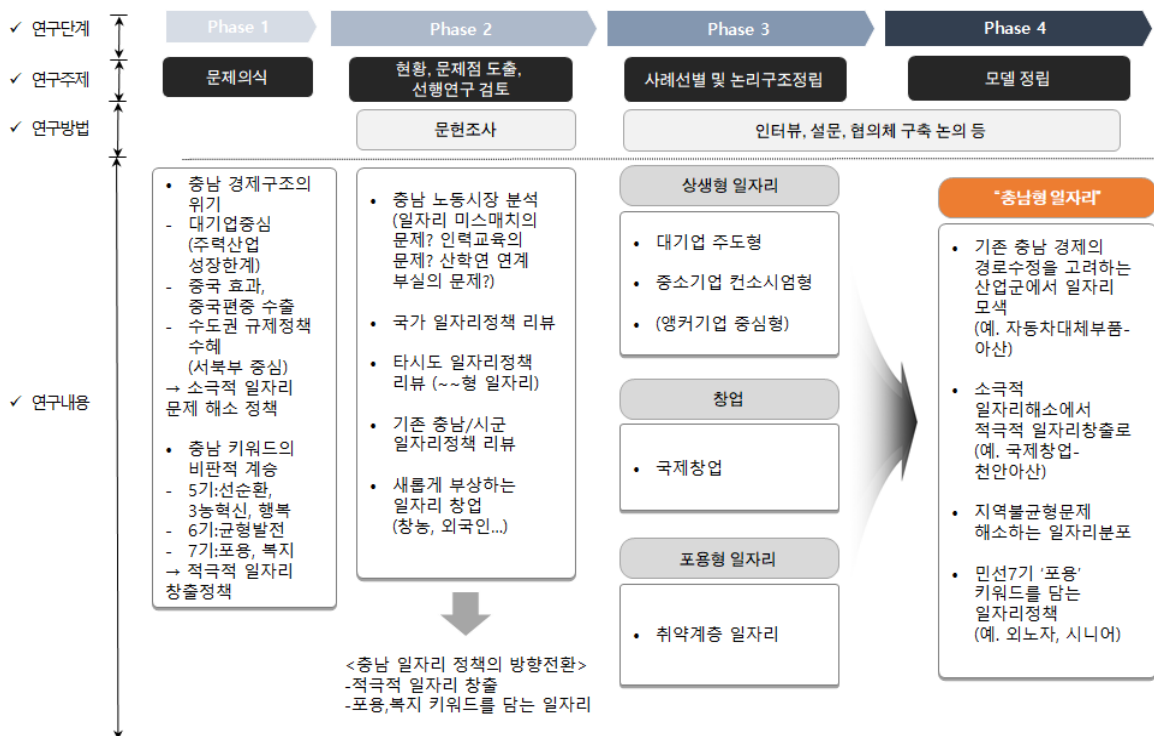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 주력제조업인 조선, 철강, 전자, 석유화학 산업에서 생산성 약화와 후발주자국의 맹추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력산업의 쇠퇴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를 넘어 지역경제 초토화로 이어져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과 같이 국가의 주력제조업이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충남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창출 주체로 지방정부가 부상하고 있음.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상향식 (Bottom-up) 일자리 창출모델을 지향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노동계가 힘을 모으는 ‘OO형 일자리’를 내걸고 추진하고 있고 2014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구미, 횡성, 부산 등으로 확산.
 - 지역형 일자리의 성공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달려있고 이는 현존하는 기업의 발전 및 성장지원 정책, 미래 신성장동력 업종발굴을 통한 산업발전전략에 달려있음.
- 근년에는 4차 산업혁명이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 융복합 등 산업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반면, 기존 일자리에는 부정적 영향도 있음
 - 지금까지 일자리 미스매칭 등의 ‘소극적’ 일자리 해소정책을 펴온 충남은,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특히 일자리 창출형 산업과 기업 육성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전략이 필요

- 충남은 민선 5기 이후 대표적 아젠다를 통해 지역 발전상을 그려오고 있으며, 민선 5기의 선순환·3농 혁신·행복, 민선 6기의 균형발전·환황해를 거쳐 금번 민선 7기에는 포용과 복지를 내걸고 있음.
- 적극적 일자리 창출전략, 포용과 복지를 담은 일자리정책으로 방향 전환의 시점

2. 연구방법 및 체계

-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충남 노동시장을 둘러싼 문제점 도출, 정책 분석, 사례분석을 통해 주요 핵심이슈(쟁점사항) 발굴.
 - 둘째, “충남형 일자리”를 구성하는 분야를 설정하고, 정성 측면과 정량 측면에서 핵심이슈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 셋째, 정책방향, 제도개선, 모델 등을 도출.

[그림 1] 연구수행체계



02

충남형 일자리의 정의

1. 충남형 일자리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충남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양극화를 완화시킬 일자리를 “충남형 일자리”라고 정의하고 그 모델을 제시
 - 충남형 일자리는 충청남도가 주도하고 지역의 이해당사자 및 도민 참여를 통해 생산관계 및 생산방법, 고용지역, 고용계층의 다양한 혁신을 지향함으로써 충남에 새로운 산업을 촉진하고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
 - 동시에, 충남 노동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던 산업적 경로의존성을 수정하거나 혹은 새로운 경로를 제안하고 적극적인 지역밀착형 노동정책을 펼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충남 노동시장에 성장과 복지, 양극화 완화를 도모하는 방법임
 - 충남형 일자리의 핵심목표는 기존 경제구조의 한계를 인정하고 충남 산업의 경로의존성을 수정, 새로운 경로를 제안하면서 일자리를 창출
 - 나아가, 기존 산업경로에 대한 고찰을 계기로 현재 노동시장의 왜곡을 개혁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정의 및 정책모형

1) 일자리의 구성요소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완화 : 상생형 일자리

- 상생형 일자리란 ‘산업생태계 다양화, 대기업중심의 산업경로 수정, 청년선호 일자리 창출의 키워드의 일자리를 통해 충남에서 취업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자리’를 의미

- 일자리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노동시간, 기본급 수준, 수당, 기업복지 내용, 성과급, 고용안정성, 임금 상승가능성, 승진 가능성 등
- 대기업의 정규직들은 사회보험과 기업내 복지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니즈(needs)를 비교적 풍요롭게 충족한 반면,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기업내 복지가 약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기업자체의 영업이익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인상의 유인이 크게 작동되지 못함
- 이러한 양상은 일자리 구성요소의 차등화가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하는 양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음

2) 취업 · 고용취약계층에게 나타나는 양극화 완화 : 포용형 일자리

- 포용형 일자리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치 않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포용성에 기반을 두어 창출되는 제 유형의 일자리’를 의미
 - 포용정책은 자원배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또는 소외되는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의미
 - 2019년 6월 19일 고용노동부와 국내 17개 주요 대기업은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확산 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
-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노동자 집단 내에서 시장임금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고용취약계층으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급부상. 이들 직종을 고려한 지원사업, 제도 논의 필요.
 - 코로나19 시대에는 기존의 ‘국가 포용형’ 일자리보다,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야 하는 ‘지역밀착 포용형’이 중요. 지역밀착 포용형 일자리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고민 필요.

3) 소극적 일자리 지원에서 적극적 일자리 창출로 : 국제창업형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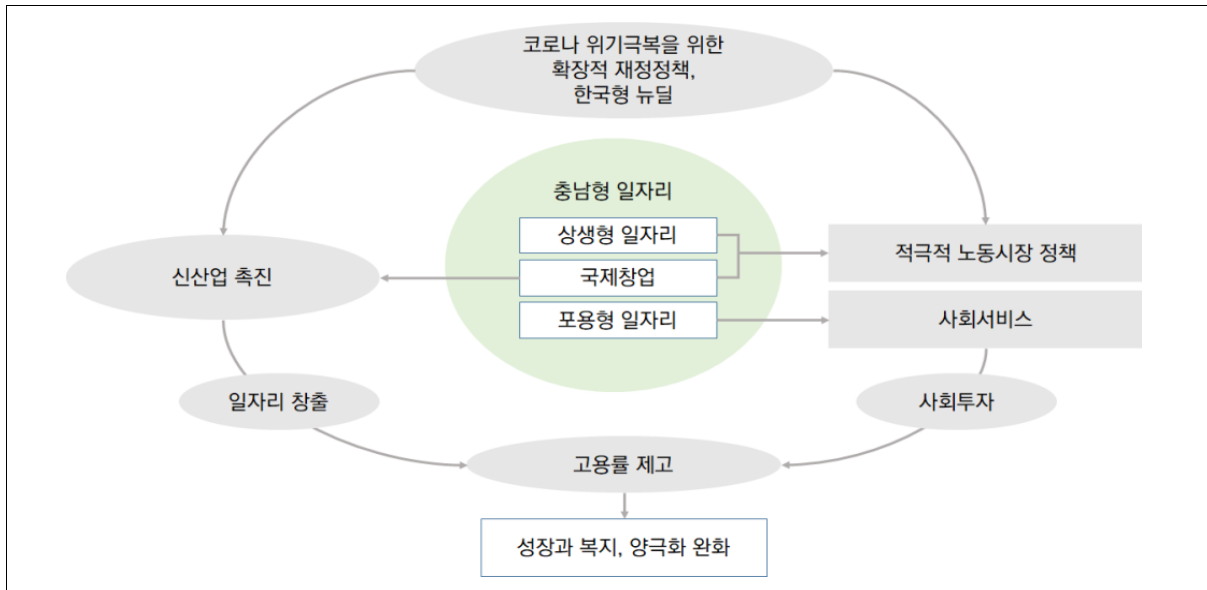
- 국제창업형 일자리는 ‘국내외 공간범위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도민 또는 우리지역 거주 외국인이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시장에 진출하는 비즈니스’를 의미
 - 지자체 차원에서 국제창업과 관련조례를 마련하거나 조례에 관련내용을 넣은 지자체는 거의 없음 (서울, 부산만 설치)

- 국제창업 관련정책은 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비교적 활발히 추진 중
- 지자체 차원에서는 일자리 감소를 국제화된 창업활동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 중
- 도민은 물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창업활동을 장려하여 외국인들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4) 충남형 일자리의 정책모형

- 충남형 일자리는 충남 노동시장에 성장과 복지, 양극화 완화를 도모하는 방법론
 - 충청남도가 주도하고 지역 이해당사자 및 도민 참여
 - 생산관계 및 생산방법, 고용지역 및 고용계층의 다양한 혁신을 지향
 - 새로운 산업 촉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던 산업 경로의존성 수정 또는 새로운 경로 제안
 - 적극적 지역밀착형 노동정책
- 충남형 일자리 창출의 핵심목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양극화 완화”
 - 지금까지 경제구조의 한계를 인정하고 충남의 산업기반을 확대,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 현재 노동시장의 왜곡을 개혁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를 통해 양극화 완화
 - 기존 일자리정책과의 차별점은, 신규 일자리 창출문제를 사회통합적 개선 측면과 적극적으로 결부한다는 점임
 - ‘일자리는 산업 성과의 결과물이자 노동시장에서는 파생수요적 개념’이라는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상황을 극복하려는 취지

[그림 2] 충남형 일자리의 정책모형



자료 : 스웨덴 '렌-마이드너 모델'을 수정

03

충남형 일자리 모델 소개

1. 상생형 일자리

1) 지역별 상생형 일자리

-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각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여러 주체가 참여해 지역사회가 함께 논의토록 하여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표 1] 상생형 일자리 유형 구분

구분	대기업 주도			중소기업 주도		원·하청 상생		
	광주형	울산형	구미형	군산형	경남 밀양형	대구형	부산형	강원 횡성형
기업	현대 자동차	현대 모비스	LG화학	자동차 부품 기업 연합	창원, 부산 등 동남권에 소재한 28개 중소기업 조합	이래AMS 및 협력업체 등 270개사	코렌스EM+ 협력업체 20개	완성차 제조기업과 협력부품 생산을 담당할 8개사
업종	자동차	전기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주물기업	자동차 부품	전기 자동차 파워 트레인	초소형 전기차

- 각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어 구체적인 성과를 논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
 - 다만, 각 지역마다 지역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협력, 중소기업간 협력, 중앙-지방정부 협력 등을 기반으로 추진하면서 신규일자리 창출 도모

- 본 연구에의 충남 상생형 일자리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특징을 충남형 일자리에 맞춰 녹여내는 작업을 수행함.
- 대기업 주도형, 중소기업 주도형의 2개 축을 중심으로 산업별로 모델화 시도

2) 충남 상생형 일자리 전략방향

(1) 전략 및 방향

- 상생형 일자리 인식조사를 통한 충남 상생형 일자리의 3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위험 최소화
- 둘째, 상생형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셋째, 근로자- 주민-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표 2] 충남 상생형 일자리 정책방향 및 전략

투자위험 최소화	선순환구조 확립	상생협력 강화
투자기업 교통, 물류 등 인프라 지원	청년선호 일자리 창출(미스매칭 해소)	(근로자)생산성 향상 노력
입지 및 투자 보조금 확대	고용안정 보장	(근로자)적정 근로조건 수용 및 노사분규 최소화
인허가 및 규제완화	지역인재 채용	(주민)민원 및 갈등 최소화
기업 자체 경쟁력 강화 지원	정주환경 개선	(주민)참여기업제품 구매, 홍보 등

(2) 충남 상생형 일자리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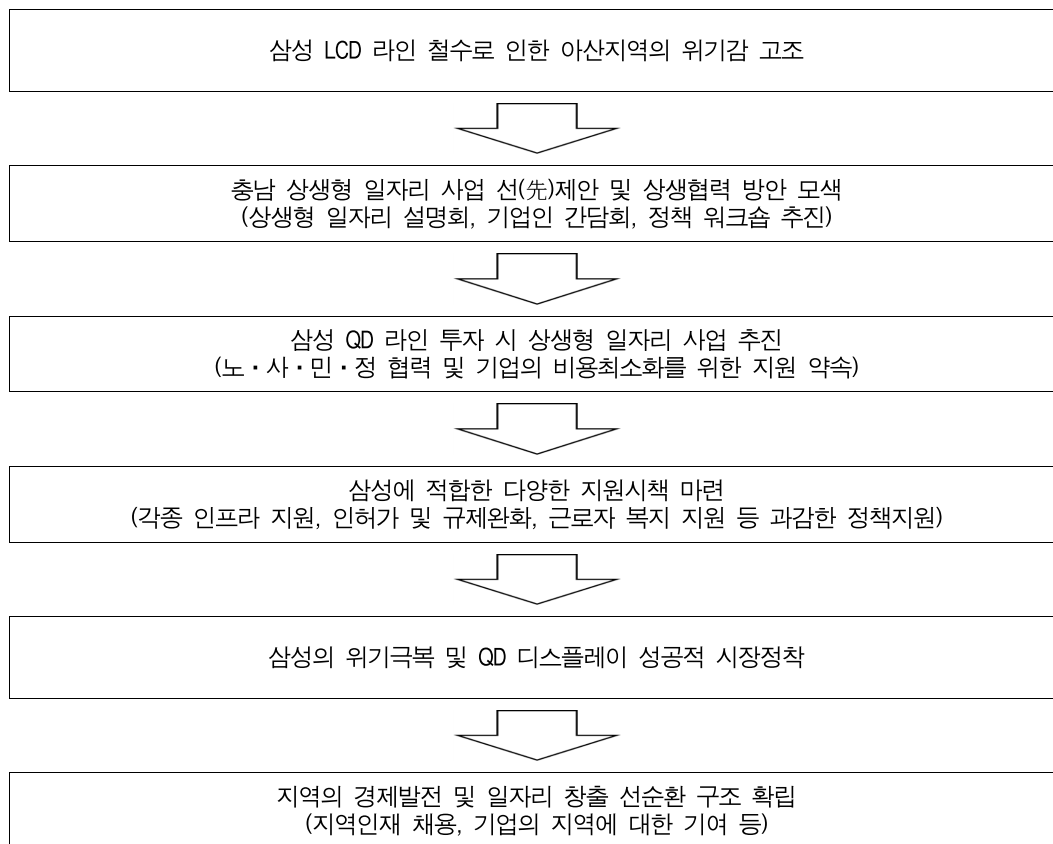
[표 3] 충남 상생형 일자리 제안

대기업 주도(원·하청 상생형 포함)	중소기업 주도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아산) [QD-OLED]	자동차 대체부품산업(내포) 전기·수소자동차부품 산업(아산)
후보	후보
현대 자동차(아산) [수소차·전기차 생산기지]	의료, 헬스케어 컨소시엄(태안, 서산)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컬 정유 3사(서산)	벤처기업(ICT) 컨소시엄(천안)
종근당건강(당진)	식품기업 컨소시엄(논산)
삼성 SDI(아산)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컨소시엄(보령, 서산)

- 대기업 주도형

- 향후 대규모 투자가 계획된 기업을 타깃으로 주도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지원
- 예)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본격화 → 투자지역 일대 협력사 및 지원기업들의 입주 가속화로 간접적 일자리 창출 → 충남은 삼성 노조-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및 미래 디스플레이 R&D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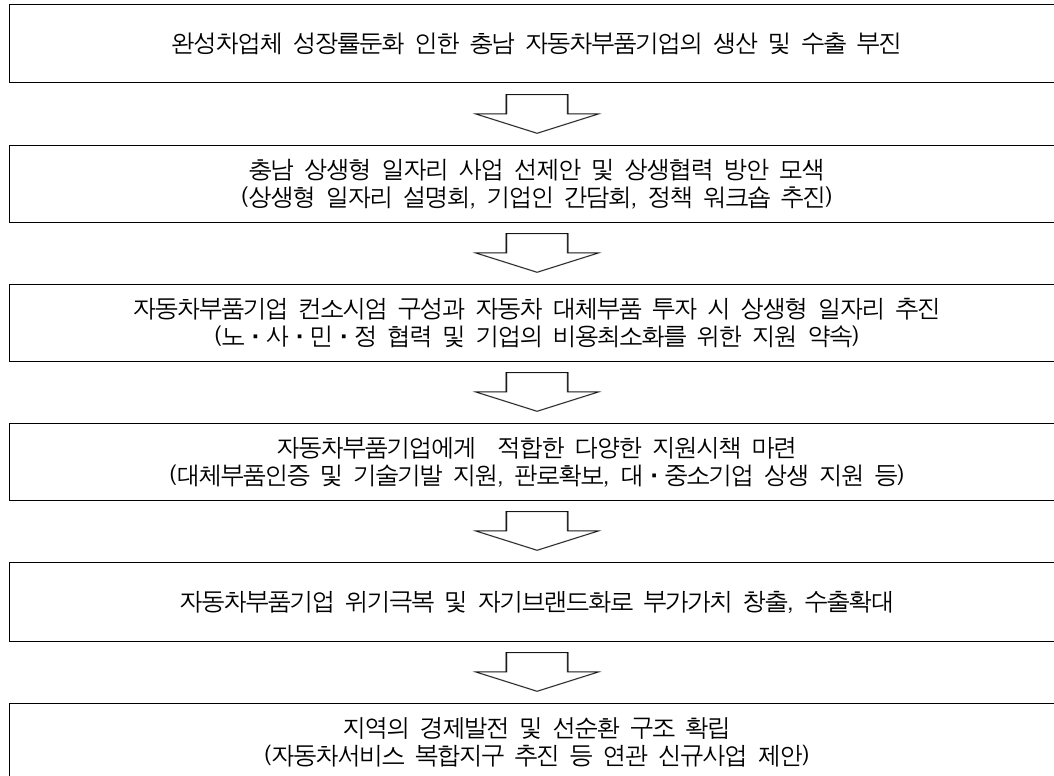
[그림 3] 대기업 주도형의 선순환 구조 확립 프로세스(예.삼성)



- 중소기업 주도형

- 내연기관 자동차산업의 부진은 자동차부품기업의 위기로 직결.
-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대체부품인증 및 기술개발 지원, 판로확보, 대중소기업 상생지원 등 추진
- 내포시에 국토부 산하의 자동차대체부품인증센터가 개소를 앞두고 있는 등, 충남에 자동차대체부품의 생산-인증-판매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가능한 기회로 연결

[그림 4] 중소기업 주도형의 선순환 구조 확립 프로세스
(예.자동차 대체부품 컨소시엄)



● 도내 일자리 관련기관의 역할

- 다양한 선도사업과 전략적 투자, 한국판 뉴딜 등 고려
- 기업간 협동화사업 추진 및 기존재직자 학습네트워크 구축 필요
- 충남 일자리진흥원 및 유관기관에서는 독일 AUTO5000 의 사례를 참고한 “학습공장” 개념 도입 등 시도 고려

[표 4] 충남형 일자리모델 추진시 지원조직의 기능

지원기능	세부지원기능
정보수신발신/ 조사연구	· 정보집약·정리(지역, 단체, 니즈조사, 선진사례조사 등) · 정보 Tool의 제공·발신(SMS, 회보지, 보고서, 출판물, 게시판 등)
이벤트 개최	· 입주기업들 누구나가 쉽게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의 개최 (행사, 포럼, 심포지엄 등)
인재 육성	· 강좌, 세미나, 학습회, 연수, 강연
기업 상담	· 기업 활동시의 필요한 각종 상담
전문 기업 서포트	· 입주기업의 운영, 마케팅, 회계, 세무, 노무, 법인등록 등 각종 전문적인 상담대응, 컨설팅
매칭 코디네이트	· 지역자원(인력, 자원, 정보 등)의 마케팅, 협력관계(지자체, 기업 등)의 코디네이트, 교류기회 제공
지원시설의 운영	· 지원시설의 운영(기존 지원기관의 장비 및 기기 활용) 등
모임장소의 운영	· 시설과 별개의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장소 및 free space 제공
금융 서포트	· 자체의 재원조성 및 투자펀드, 민간지역금융 등의 지원
그 외의 독자사업	· 지원조직 자체의 독자적인 지원사업 추진
유관기관 협동추진	· 행정기관 및 기존 기업, 기존 기업지원기관의 창업지원 강화 (충남TP, 중진공, 중기부, 창진원, 산단공, 일자리진흥원 등)

2. 포용형 일자리

1) 포용형 일자리 정의

- 포용(包容)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이며, 정책의 관점에서는 자원배분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또는 소외되는 사회·경제적 약자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의미
 - 포용형 일자리 모델은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른 노동빈곤층 또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정책적 배려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 포용형 일자리 주요사례

(1) 대기업 주도형

- 2019년 6월 19일 고용노동부와 국내 17개 주요 대기업은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확산 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
 -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치 않은 장애인, 고령자, 자녀를 가진 여성 및 청년들에 대한 취업을 지원
 - 직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사회 공헌 사례의 공유 및 확산을 주 내용으로 함.
- 참여 주요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KT, IBK기업은행 등
 - 참여 기업들은 사회 공헌활동을 하며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없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
 -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

(2) 정부 주도형

-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사업주체는 지방정부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추진 (2020년 총 예산은 84,232백만원)
 - 사업유형으로는 지원자원 활용형, 지역기업 연계형, 서민생활 지원형, 지역공간 개선형 등으로 구분

(3) 지방정부 주도형

- 지방정부 차원의 포용적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창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향
 - 구체적으로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제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체계 내에서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
 - 실제로 단순히 일자리 제공이라는 목적 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 및 복원을 도모

3) 포용형 일자리 전략방향

(1) 기본방향

- 지역발의 프로그램(Local Initiative Program, LIP) 적극 도입
 -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방식에서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방식으로 적극 전환
 - LIP를 적극 도입하여 포용형 일자리 창출
 - 사회적 책임 차원의 대기업/공공기관 주도형 일자리 적극 창출

(2) 포용형 일자리 추진 방안

- 지역발의 포용형 일자리 프로그램(LIP) 운영
 - 참여대상 : 취약계층 및 지역공동체 구성원 등 도민 전체로 확대
 - 지원분야 :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모든 분야로 확대. 민간의 아이디어 최대 수용
 - 지원규모 : 충남도 일자리창출 전체예산의 최소 20% 이상을 LIP에 투입
 - 사업방식 : 사업참여자들 심의를 통해 선정. 자문서비스(금융·회계·법무·마케팅·노무 등) 및 컨설팅(비즈니스관리·수익증대·운영활성화 등) 지원
- 대기업 및 공공기관 주도형 포용형 일자리 확대
 - 공동선언문 발표 : 고용노동부와 대기업의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선언문
 - 이를 충남에 확산시켜, 대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형 일자리 사례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
 -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법’ 제정 가시화에 따라 도 및 15개 시군의 출연출자기관에서 포용형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 필요

3. 국제 창업형 일자리

1) 국제 창업형 일자리 사례

(1) 국내 사례

- 국내 창업관련 법률은 약 20여개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 법률이 시행중
- 광역지자체에서 국제창업과 관련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음 (서울, 부산)
 - 관련 정책은 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비교적 활발히 추진

[표 5] 국내 주요 광역지자체 외국인 창업지원 사업

지역	사업명	내용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이민자들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여 창업하기 좋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글로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창업교육, 외국인 창업대전 등의 사업과 행사를 실시 중 - 외국인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의 성공 창업과 지속 성장을 위한 사무 공간·지원 프로그램 제공 - 서울시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외국인 기술창업 활성화에 기여
	인베스트 서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산업진흥원 산하조직 - 기술아이디어 보유한 외국기업 지원 - 2014년부터 '외국인 창업대전(A Big Think) 개최. 수상하면 기술창업비자 제공, 투자금 없이 창업가능
대구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청년층 중심의 글로벌 혁신가들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 컨퍼런스를 동시개최하고 관련된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부산	경제진흥원 외국인 창업지원	외국인 및 이민자 중, 대한민국 내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부산소재 대학 내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자금, 판매 및 홍보 등 지원
인천	e-다누리 창업센터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언어적 제약이 없는 모국에 인천의 제품을 온라인 마케팅으로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문화 가정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8 창업지원사업>,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user>),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bepa.kr/>) 보완

(2) 해외 사례

- 일본 후쿠오카시 “Growth Next”

- 2017년 후쿠오카시의 강력한 지원과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스타트업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 사무실, 회의실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창업희망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음.
- 단순히 스타트업으로 공간 채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닌, 지원시스템 안에서 스타트업이 “졸업”해 갈 수 있도록 시설 내에 다양한 네트워크, 지원기관을 설치함.
- 외국인도 스타트업을 하기 쉽도록 비자취득 지원, 센터 활용 등 지원. 또한 운영부터 실무까지 폭넓고 깊게 지원하는 3개의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중국 장쑤성 청년창업센터 “Youth Space”

- 2018년 정부의 창업분야 혁신정책에 대한 적극적 정책추진으로 설립
- Youth Space의 장소 임대료는 난징시와 구려우구에서 전액 부담 및 실내 인테리어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도 지원. 또한 스타트업의 초반 인큐베이팅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
- Youth Space는 국제창업에 대한 의지가 높은 편으로, 한국, 독일, 프랑스, 한중일 합작기업을 인큐베이팅 한 바 있음. 현재 KOTRA와도 협력 관계를 유지 중이며, 향후 국제청년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창업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임.

2) 국제 창업형 일자리 전략방향

- 충남도는 2019년 제정·공포된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국제창업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국제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민 및 충남 거주외국인도 대상으로 하여야 함
 - 글로벌 시각에서 지역경제, 산업, 일자리 등 이슈 조망한다는 점에서 보다 넓은 시야로 접근 필요
 - 국제창업과 관련된 충남의 법제도 정비, 정책개발을 위한 내발적 움직임 필요
- 인바운드 창업(국내에서 외국인창업)과 아웃바운드 창업(해외에서 우리 도민창업)에 따라 세분화된 정책 마련

- ① 인바운드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본의 후쿠오카시의 growth next나 중국 장쑤성의 Youth Space와 같은 플랫폼을 충남에 구축
 - 예비창업자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업대상인 예비창업자를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국제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 필요
 - 예비창업자 간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육성 및 지원 필요.
 - 관 주도의 창업이 아닌 지역기업과 함께 창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 조직 운영이 추진된다면, 충남을 통해 국내에 국제창업 이슈가 부각되면서, 국제창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모도 가능해 질 것임.
- ② 아웃바운드 창업은 충남도내 청년인재들이 해외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구비된 플랫폼을 구축
 - 해외의 창업지원 시설인 일본의 후쿠오카시의 growth next, 중국 장쑤성의 Youth Space 등과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 필요

04 요약 및 제언

1. 요약

- 충남형 일자리는 충남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일자리
 - 충남형 일자리의 핵심목표는 기존 경제구조의 한계를 인정하고 충남 산업의 경로의존성을 수정, 새로운 경로를 제안하면서 일자리를 창출
 - 나아가, 현재 노동시장의 왜곡을 개혁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양극화를 완화
- 충남형 일자리는 3가지로 구성
 - 1) 일자리의 구성요소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완화 : 상생형 일자리
 - 상생형 일자리는 산업생태계 다양화, 대기업 중심의 산업경로 수정, 청년선호 일자리 창출의 키워드 일자리를 통해 충남에서 취업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자리
 - 2) 취업 · 고용취약계층에게 나타나는 양극화 완화 : 포용형 일자리
 - 포용형 일자리는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치 않은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포용성에 기반을 두어 창출되는 제유형의 일자리
 - 3) 소극적 일자리 지원에서 적극적 일자리 창출로 : 국제창업형 일자리
 - 국제창업형 일자리는 국내외 공간범위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도민 또는 충남 거주외국인이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시장에 진출하는 비즈니스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

2.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포용형 일자리” 모델, “국제창업형 일자리” 모델의 3가지 모델을 충남형 일자리 모델로 제안함.
 - 상생형 일자리로 대기업 주도형과 중소기업 주도형을 각각 제안함. 대기업 주도는 대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중소기업 주도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스타기업으로 성장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임.
 - 포용적 일자리 모델에서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식에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의 적극 전환을 위해 지역발의 프로그램(Local Initiative Program, LIP)을 적극 도입하여 포용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과 사회적 책임차원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주도형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방안을 제안함.
 - 국제창업형 일자리 모델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운영하는 창업개발부 선정 및 관리, 공동 창업인큐베이터 설립운영, 공동 창업펀드 운영, 창업 성공기업이 양국에서 동시상장 가능하도록 허용 등의 방안을 제안함 (중국 하북성 사회과학원 공동세미나를 통한 제언내용으로 한중 공동 내용이 중심으로 도출됨)
- 새로운 가치 창출이 요구되는 요즘, 개개인이 갖는 창조성 넘치는 감성과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창조성 넘치는 문화와 산업을 가지고 다양한 인재가 모여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는 지역만들기가 떠오르고 있음.
 - 전통적 교역국이던 중국, 일본 외에도 동남아시아와의 물류적 교류 증가, 대산항 및 서산공항 신규항로 취항 등 추진
 -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사람의 이동, 경제활동도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국내외 인류·물류증가 대응과 더불어, 충남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창업을 위한 시도 및 인프라의 선제적 정비 필요
- 충남형 일자리의 차별화를 위한 4가지 제언
 - 첫째, 유치기업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둘째, 다양한 형태의 도시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다양한 형태의 도시형 산업은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기 때문에 특히 '상생형 일자리'모델의 경우, 입지공간에 입주하는 다양한 혁신주체들과의 연계가 사업성공에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지리적 근접성에 입각한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

일자리모델 입지내 도시형 산업은 자체적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연관효과와 기술연관효과를 통해 산업전반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셋째, 융복합적·네트워크적으로 일자리 창출 산업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상생협력 거버넌스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야하고 충남형 일자리모델 추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서 상생협력 지원기관을 통해 창업에서 성장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협력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함.
- 넷째, 지역 대표산업으로 발전하기까지 후속 지원으로 기업진단-기술 및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설계·지원이 필요함.

※ 본 리포트는 충남연구원 2020년 경제산업연구실 아젠다전략연구과제, “충남형 일자리 추진전략”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책임)이민정 실장 minjoung1006@cni.re.kr

(포용형일자리) 신동호 선임연구위원 cyberdhs@cni.re.kr

(상생형일자리) 김양중 연구위원 kyj0509@cni.re.kr

(국제창업) 김종화 강원대학교 교수 kjonghwa@kangwon.ac.kr

송민정 연구원 minjeong0513@cni.re.kr

전춘복 연구원 quanchfu@cni.re.kr

김영수 연구원 kys312@cni.re.kr

- 관계부처 합동(2019.2.21.), 상생형 지역일자리모델 확산방안.
- 김범식·황민영·김묵한 (2015), ‘고용의 질 지수를 활용한 서울시 고용의 질 평가와 구성요소별 분해’, 『서울도시연구』, 16(4), 217-231.
- 김현철 (2019.5),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발굴과 확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도자료,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발굴과 확산’ 국회토론회.
- 김호·정운정 (2020.4), 「부산형 일자리 사업의 의미와 향후 과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 금재호(2014), “한국의 고용전략,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한국경제포럼』 7(2).
- 류기락(2014), ‘노동시장 분절과 미스매치의 상호작용이 임금 및 고용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성균 (2011), ‘좋은 일자리의 지역별 비교 및 요인분석’, 『지역사회학』 12(2).
- 황준욱 (2005), ‘ILO의 일다운 일(decent work)에 대한 발전적 논의’,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 김묵한·김범식 (2012), 「서울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 김진수 외 (2013), 글로벌 창업 활성화 방안, 창업진흥원.
- 박소희·심완섭·이은재 (2015), 글로벌창업 지원제도 국제비교를 통한 국내 제도 방향 모색, e-비즈니스연구 16(6), pp.543-570.
- 충청남도 (2018.12), 충청남도 민선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 Anker, R et al (2002),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ILO Policy Integration Department Working Paper*.
- Auer, P. (2007), “In Security and labour markets : Combining flexibility with security for decent work”, *Economic and labour Market Papers*. ILO, Geneva.
- Shimer, Robert (2007), “Mismatch” American Economic Review, 97 (4) .
- 川田恵介・佐々木勝 (2012), 「雇用ミスマッチの概念の整理」, 『日本労働研究雑誌』.